

민천일보

제2630호

2020년 8월 16일 | 연중 제20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남촌동 성당, 성체조배실

입당송 | 시편 84(83), 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제1독서 | 이사 56, 1.6-7

화답송 | 시편 67(66), 2-3.5.6과 8(◎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 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2독서 | 로마 11, 13-15.29-32

복음 환호송 | 마태 4, 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태 15, 21-28

영성체송 | 시편 130(129), 7(또는 요한 6, 51 참조)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전례는 5면에 있습니다.

교구장 사목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 28)

이 주의 성경쓰기표

요 일	16 (주일)	17 (월)	18 (화)	19 (수)	20 (목)	21 (금)	22 (토)
성경 / 장	2코린41-418	5,1-5,21	6,1-6,18	7,1-7,16	8,1-8,15	8,16-9,15	10,1-10,18
확 인							

기도의 집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작품(에페 2,10) 이기에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루카 12,7) 하느님께서서는 매일의 삶에서 인정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당신 가까이 끌어당겨 안아 주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도 주십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이사 56,7)

기도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루카 6,12)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불린 우리가 기도 말고 따로 보여드릴 삶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토대로 삼아야 한다.”(『복음의 기쁨』 259)고 강조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기도를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전심(全心)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심(分心)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말씀과 만나고 주님과 성실한 대화를 나누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활동은 쉽게 무의미해지고, 우리는 노고에 지치고 열정도 사그라지고 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허파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복음의 기쁨』 262)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 15,28)

기도는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일찍이 제자들은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마르 9,14-29)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마태 17,20)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마르 9,29)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대한 가나안 부인의 간청은 기도이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기도 안에서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지는지 체험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마태 15,28)

오늘 가나안 부인의 체험은 곧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분심(分心)으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도 아무 걱정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의 꽃이 되어 하느님의 집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 4,6-7)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유성현 베드로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이주의 암송구절



너희 귀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요한 1,19)

바오로 서간에 대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서간(書簡) 형식을 갖춘 책들입니다. 27권으로 구성된 신약성경 가운데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을 제외한 나머지 21권이 모두 서간에 해당합니다. 이 서간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서간들은 당시 사회 구조와 공동체들의 면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뿐더러,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가르침과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깊이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21권의 서간 중 순서상 먼저 등장하는 14권은, 저자를 바오로 사도로 여기는 교회 전승에 근거하여 '바오로 서간' 또는 '바오로계 문헌'(Corpus Paulinum)이라고 불립니다. 이 가운데 13권의 서간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로마 1,1) 또는 "바오로가 ...에게 인사합니다"(1코린 1,1)와 같은 표현으로 발신인을 사도 바오로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열네 번째 서간인 히브리서의 본문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의 책만을 바오로 서간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와 같은 표현이 서간에 나타난다고 해서 이들이 실제로 바오로 사도에 의해 쓰였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가명(假名)으로 쓰였을 가능성, 다시 말하면 바오로 이후 세대가 바오로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 그의 가르침과 신학적 사상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서간이 바오로의 진짜 서간인가, 즉 친저성(親著性)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7개의 서간만큼은 바오로의 친서가 확실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입니다: 로마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테살로니카 1서, 필레몬서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섯 개의 서간 가운데 테살로니카 2서, 콜로새서, 에페소서에 대한 친저성 논의는 오늘날에도 뜨겁지만, 사목 서간으로 분류되는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는 대체로 바오로의 친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몇 서간에서 바오로의 친저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성경으로서의 가치

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서간들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교회의 "경전(Canon)"이고, 아울러 바오로 사도의 신학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친서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바오로계 서간의 발신인이자 중심 인물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는 기원후 5~10년경 킬리키아 속주의 수도였던 타르수스(Tarsus)에서 태어났습니다(사도 21,39).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오로는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고(모든 그의 서간이 그리스어로 쓰임), 특히 그리스식 수사학에도 능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헬레니즘의 영향에 놓여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벤야민 지파(필리 3,5; 로마 11,1)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그는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사는 디아스포라(Diaspora)적 배경도 지니게 됩니다. 바오로가 '사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복합적인 문화 배경을 암시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유대식 이름이고, '바오로'는 로마-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사이'이자,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까지 한 인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필리 3,5-6).

그랬던 바오로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심하게 됩니다(사도 9장). 이 체험은 바오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키는데, 교회를 '박해'하던 이가 교회를 '건설'하는 일꾼이 된 것이죠. 바오로는 팔레스티나 지역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발칸 반도를 거쳐 당시 패권을 쥐던 로마 제국의 수도까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품었던 다양한 신학적 사고와 가르침은 이후 그리스도교 교리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바오로 서간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문헌이기도 한 바오로의 서간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지,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는 한 사람도 적지 않다

지금의 자연은 경제성장 우선주의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버려지고 있으며 더 심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동의 집인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을 생각하면 환경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에 눈뜨기 전까지 저는 생각 없이 환경을 망치는 데 일조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석4동 본당(=주임 신대근 마르코 신부) 사회사목분과 환경위원회를 맡아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환경사목부에 의뢰하여 전신자 환경교육을 하고 생태환경사도직 단체인 '하늘땅물벗'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석4동 벗명은 '돌틈벗'이라 짓고 환경위원회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돌틈벗'은 돌틈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워내는 자연의 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천하자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제 생활 태도를 점검하며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그릇을 아무렇지도 않게 씻어 하수도로 버린 행위, 세제를 사용할 때 오염을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쓰던 태도, 또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등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역행하는 습관임을 교육과 회합의 나눔 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준비하거나 구매할 때에도 환경에 적합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태도를 갖고 환경에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돌틈벗은 한 달에 한 번씩 회합을 통해 함께 수행해야 할 실천 사항을 정하고 지난 실천 사항에 대하여 자체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아 더 발전하는 모임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미약하지만 돌틈벗들과 함께하니 좀 더 환경보호활동이 힘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 폐식용유를 활용하여 비누 만들기
- 헌옷을 이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탈취제 만들기

-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바구니 휴대하기 등
- 우리 농촌살리기를 위해 생강을 직구입하여 편감을 만들어 나누고 기금 마련하기
- 본당에 텃밭을 가꾸기: 상추, 고추, 도라지, 고구마, 방울토마토, 파, 부추 등을 심어 생명 먹거리를 나누는 체험을 하고 또한 사라져 가고 있는 토종 씨앗을 보존하려 노력함
- 환경영화 포럼

위와 같은 저희의 경험을 신자들과 나누기 위하여 신부님의 승인을 받아 주일 미사 강론 중에 환경지킴이 활동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문제는 이제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의 정신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환경파괴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환경을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누려온 편안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환경을 살리는 보람도 커지고, 환경을 돌볼 때에는 몸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살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해 봅니다. 변화를 이루는 것은 나부터이고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는 한 사람도 적지 않다.”

- 그레타 툰베리



전명자 아네스 · 간석4동 본당 하늘땅물벗 돌틈벗 대표

교구 소식

“사랑의 공동체” 예비 신자 피정



8일(토) 교구청 복자 이안나 홀에서 복음화사목국(=국장 이경환 비오 신부)과 노틀담 교리교재 연구소에서 준비한 예비 신자 피정이 있었다. 부평2동 본당과 장기동 본당 예비 신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요한 1,14)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피정을 통해 신앙공동체를 체험하며 지금까지 배운 교리를 종합하고, 심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환 신부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고 생활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전례

8월 15일(토)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당송 |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 묵시 11,19ㄱ; 12,1-6ㄱ.10ㄱ.1ㄷ

화답송 | 시편 45(44),10.11.12.16(◎ 10ㄷ)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교구 안내

사제 인사 발령

08.25.

성명	계시던 곳	가시는 곳
한익열	삼산동	요양
김종성	바다의 별 청소년수련원장	일만위순교자현양동산 담당
송용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파견	국내연수
연정준	마리스텔라 실버타운 원장	휴양
장성진	국내연학	삼산동 주임서리
박원재	군중	마리스텔라실버타운 원장

후원 안내

‘하느님의 종’ 이승훈 베드로 성지 조성 후원 안내

신협 131-016-645915 (재)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 성지 완성 후 후원 회원님의 이름을 성전에 봉헌할 예정입니다.

☎ 성지개발 위원회 032-765-6916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복음 환호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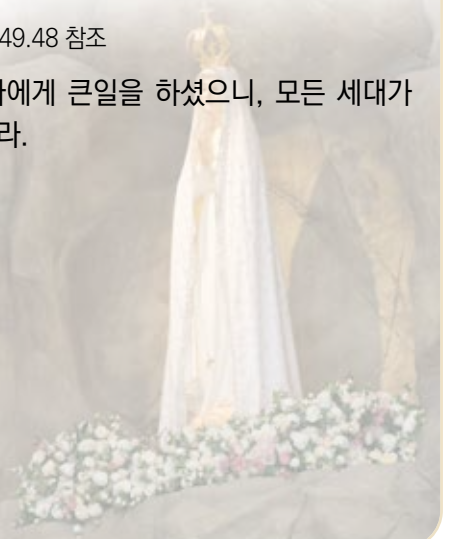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 루카 1,39-56

영성체송 | 루카 1,49.48 참조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청소년사목국 소식

제4기 청년 1945 도보성지순례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과 수도권 내 확산을 우려하여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숙박 형식의 청년 도보성지순례를 하루 일정으로 변경하여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청년 도보성지순례를 통해 청년들이 하느님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며, 하느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들의 신앙활동 재개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대상

19세 ~ 45세 청년·청장년 누구나!

일정안내

개별 집결, 각 지구 해당구간 도보 후 순례단 미사 봉헌

참가비

없음

신청방법

해당 사이트에 공지된 링크 접속하여 구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청소년사목국 블로그(blog.naver.com/in youth1)
- 인청넷 홈페이지(<http://www.inchung.net>)

※ 회차별 접수이므로 참가신청 희망 일자에 따라 모두 중복체크해야 합니다.

신청마감

2020. 9. 17.(목) 18시까지 (각 일자 선착순 50명)

9/26

남동·시흥지구 ▶ [입당] 들어가는 길

대야동성당 ▶ 이승훈베드로 묘 ▶ 서창동성당

9/27

연수지구 ▶ [봉헌] 내어주는 길

청학동성당 ▶ 동춘동성당 ▶ 선학동성당

10/9

김포지구 ▶ [성체] 받아들이는 길

고촌성당 ▶ 김포성체성지

10/10

중·동지구 ▶ [파견] 함께 가는 길

교구청 ▶ 화수동성당 ▶ 제물진두성지
▶ 답동주교좌성당 ▶ 성모순례지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청장년부 032)765-6955, 6909



[제4기 주제성구] "저는 꽃꽂이 견고 당신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119,5)

장마 때에 바치는 기도

-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이 장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장마를 거두시어
근심을 덜고
애쓰 보람을 얻게 하소서.

-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을 얻고
평화로우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 ◎ 아멘.



· CBCK 「가톨릭 기도서」 발췌

교구청 알림

◆ 예비신학교 신학과 지원반(고3·일반) 피정

때: 8/20(목)~21(금)
 곳: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강화)
 출발장소: 8/20(목) 8:30 교구청

◆ 2학기 예비신학생 면접

때·곳: 8/ 22(토) 10:00 교구청 2층 성소국

◆ 제500차 카나혼인강좌

때: 10/11(주일) 13:30~18:30
 곳: 교구청 이 안나홀
 인원: 선착순 30쌍
 ☎ 가정사무부 032-762-8888

교육 | 피정

◆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일정 재개

8/21(금) 금요 철야기도회
 8/24(월) 월요 묵주기도
 8/26(수) 수요 성경강의
 -온라인 강의 및 기도회 실시
 ☎ 032-762-6301

◆ 부평지구 '치유와 회복' 청원기도회

때: 8/19(수) 19:00~22:00
 곳: 부평4동 대성당
 주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대성당에서 미사로 진행
 ☎ 사무실 032-527-2311
 회장 010-3707-0238

◆ 지혜의 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교육 일정

월: 2, 4 주-하느님 자비 월요 피정
 화, 수: 성막과 십자가 치유 말씀 강의
 목: 찬양 치유 피정
 금: 성시간과 함께 하는 철야 기도회
 주일: 말씀 치유 낮 기도회
 곳: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 010-5454-1871, 010-3248-9705

◆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30일 피정: 9/30~10/31
 이나시오 영신수련 2박 3일: 9/11~13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9/11~13(심화)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 010-9099-2337

미사 | 행사

◆ 8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8/18(화) 14:00
 곳: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성지개발 8월 후원회 미사

8/20(목) 성지개발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푸른군대) 월례미사

때: 8/17(월) 10:00 켈기도 / 11:00 미사
 곳: 성모 순례지(교구청 내)
 ☎ 010-4375-3828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곳: 8/20(목) 14:00 답동 주교좌 성당
 ☎ 02-3673-2525
 성소문의: 김낙윤 신부 010-8715-2846

◆ 마재성지 수능 100일 미사

때: 8/25(화)~12/3(목)
 원하는 기간만큼 봉헌도 가능
 가정 지향도 함께 봉헌
 ☎ 031-576-5412

◆ 성체순례성지 수능 및 특별 100일 미사

대상: 수능 수험생 및 특별한 지향을
 기도하고자 하는 교우
 일시: 8/25(화)~12/2(수)까지 [100일]
 피정: 수능일 하루피정 12/3(목)
 감사미사: 12/4(금)~10(목)까지 봉헌
 ☎ 성체순례성지 사무실 010-5321-4676

◆ 본당 여성대표 및 본당여성 단체장 연수

때: 9/12(토) 10:00
 곳: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강사: 사무처장 김일희 신부
 ☎ 평협 사무실 032-761-6675

모집 | 일반

◆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 02-2274-1843, 4 / cdcc.co.kr

◆ 청라3동 성당 설계공모

참가등록: 8/16~27
 현장설명: 8/29(토) 14:00
 공모안 접수: 10/8(목)
 ☎ 사무실 032-566-3217
 건축위원회 010-3725-9668
 -자세한 일정 및 공모내용
 www.청라3동성당.kr

◆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모집

때: 9/3~4 9:00~17:00
 곳: 교구청 대강당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자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수강료: 2만원
 (면제기준 별도문의)
 입금 후 취소 시 환불 불가
 접수: 8/10~21 8:30~11:30
 ☎ 032-280-6226~8

◆ 2021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때: 9/7(월)~22(화)까지
 모집: 전국 전 지역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 043-260-5076

◆ 청소년자활작업장 Cafe 立

운영: (월)~(토) 9:00~18:00
 -코로나19로 인하여
 베이커리류는 판매하지 않음
 ☎ 032-773-1319

순례 | 기타

◆ 국내성지순례

8/22 안동교구
 연풍, 진안리, 마원(야외 미사),
 여우목, 홍유한 고택, 우곡성지
 출발: 사당역 1번 출구
 50M 앞 공영 주차장
 조·석식 제공 / 3만 5천원
 ☎ 김천래 바오로 010-9200-3532

성소모임

◆ 성 빈센트 드 볼 자비의 수녀회

때: 수시상담 가능
 곳: 본원 (빈센트 병원 뒤)
 ☎ 010-8833-8107

